

comingout2000

동성애자, 변장을 하고 나온다
양성, 남성들 뿐이 아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comingout2000

동성애자, 변장을 뜨고 나오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comingout2000

동성애자, 벽장을 열고 나오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comingout2000을 만들면서...

오늘 인권하루소식을 보니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가 실렸더군요. '동성애 이유로 쫓겨난 홍석천씨(38.6%)'가 7위에 올라있었습니다. 그렇죠...올 9월 홍석천씨의 커밍아웃 이후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 와중에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하나의 해프닝이나 가십거리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까지 천차만별이었지요.

우리는 그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이 사건과 동성애/자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바로 알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활동이 어느정도는 그런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 소책자-그야말로 조그만 보잘 것 없을지 모를 책이지요-를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는 두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커밍아웃과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자기자신과 사회의 벽(편견)에 흠집을 내고자 합니다. 뒤에서는 홍커지모의 활동내역과 홍석천씨의 커밍아웃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담았습니다.

홍커지모 드림

벼랑끝에 서있는 동성애자들3

왜 우리는 커밍아웃을 해야할까요?5

동성애자의 정치7

한국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위기9

동성애 관련용어/개념12

SEXUAL ORIENTATION(성적지향):12

SEXUAL IDENTITY(성정체성):12

LESBIAN(레즈비언):12

GAY(게이):12

BISEXUAL(바이섹슈얼, 양성애자):12

AMBISEXUAL(엠비섹슈얼):13

TRANSSEXUAL, TRANSGENDER(ED)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드)):13

QUEER(퀴어):13

DRAG(드래그):13

HOMOPHOBIA(호모포비아):14

HETEROSEXISM(헤테로섹시즘, 이성애주의):14

OUTING, TO "OUT" SOMEONE (아웃팅):14

동성애자 정체성과 운동 안에서의 상징들15

무지개(RAINBOW):15

분홍색 역삼각형(INVERTED PINK TRIANGLE):16

검은색 역삼각형(INVERTED BLACK TRIANGLE):16

홍석천과 같지만 다른 사람들17

그레그 루가니스 Louganis, Greg (1960.01.29 -) 다이빙 선수17

마이클 키비 Michael Kirby (1939.03 -) 법률가 | 판사18

엘런 드제너리스 DeGeneres, Ellen (1958.01.26 -) 배우 | 코미디언19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20

1.홍커지모는 무엇인가?20

2.홍커지모는 왜 만들어졌나요?20

3.홍커지모는 무슨일들을 했나요?20

홍석천의 커밍아웃과 언론22

[사람과사회] 누가 그의 결단을 유린했는가22

[인권하루소식] 홍석천 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26

[한겨레] 동성애자 인권과 국회 품위27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합니다!28

벼랑끝에 서있는 동성애자들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집행위원, 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임태훈

최근 연예인 홍석천씨가 동성애자임을 고백했다. 홍씨의 이런 '커밍아웃' 과 관련해 KBS·MBC 등 방송국들은 그에게 일방적으로 출연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성애자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사실 한국엔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동성애자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도 없다. 바꿔 말하면 현실적으로 자행되는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구나 보장장치가 전혀 없다는 말도 된다.

이 땅에서 동성애자는 인권문제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돼있는 '성적(性的)소수자'집단이다. 국가 권력과 사회 주류는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도덕적 또는 종교적 측면으로만 접근해 왔다. 즉 인권적 측면을 도외시하며 정상인과 변태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혐오범죄·파들림·차별·해고 등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구체적 인권피해사태에 눈을 감고 있다.

정부는 여태껏 동성애자들을 인권보장 차원에서 대하는 것을 시기상조로 인식하고 있다.그것은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이등시민 내지 국외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도 적극 보장해야 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상당수(4~10% 추산)를 차지하는 동성애자 인권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

동성애자 인권문제는 한 인간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인권문제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그 인권피해 사례나 구제 및 활용방안은 국가인권기구가 지향하는 모든 인권보장장치와도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는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과 해고문제다. 동성애자로 드러나 받는 인격적 모욕과 폭력, 나아가 생존권 위협은 정말 심각하다. 그럼에도 동성애자들은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선뜻 자신의 피해를 방어하지 못한다. 폭력·해고문제가 발생하면 경찰과 직장 관련자가 편견을 갖고 문제를 축소하거나 본질을 왜곡하기 일쑤다. 따라서 국가인권위가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조사해 적절히 처리하는 인권 감시자가 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도리어 동성애자를 통제하기 위한 반(反)인권적 법안을 내놓았다.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동성애자들은 정통부가 이 개정안을 통해 위해(危害)정보내용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경계하며 강력 반대한다. 뽀박받는 한국의 동성애자들을 더욱 곤란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과 뜻있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 인터넷 등급제를 통해 국가권력이 인터넷 정보를 장악하고, 정통부의 위상과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내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피나는 인권운동으로 그나마 정보교류가 쉬운 인터넷 상에서 상호친목을 다지고 이를 힘겨운 삶의 작은 위안으로 삼아왔다.

사이트 운영자들과 이용자들은 부당한 자기검열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혹시 통신망 운영자나 정부기관에서 동성애자 사이트에 가할지 모르는 부당한 감시와 억압을 피하기 위해, 외국의 동성애자 사이트처럼 선정적인 사진이나 정보교류를 스스로 차단해왔다.

그런데 단지 동성애란 이유만으로 동성애자 사이트 정보를 사악한 것으로 몰아 차단하겠다는 시럽고 분통이 터진다.

술한 동성애자들은 벼랑끝에 서 있다. 자신의 성(性)정체성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으로 변민과 불면의 나날을 보낸다. 마음을 잡지 못하면 가출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또한 동성애자로 드러나 가정과 학교·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왕따'로 따돌림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동성애자 사이트의 역할은 매우 컸다.

동성애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상담, 상호친목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 막연한 혐오감이나 편견을 가졌던 이성애자들의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정통부는 동성애자 인권과 삶의 기반을 다시 암흑으로 되돌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만큼 국가·사회의 부당한 억압은 없어야 한다.

왜 우리는 커밍아웃을 해야 할까요?

컴투게더 창단멤버, 현 뉴욕대 인간 성(性) 연구 프로그램 박사과정 재학중 이형석

"정치적"이라는, 또는 그 틀 안에서, "인권"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 중의 한 가지에는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이성애자다"라는 가정에 있지 않을까요? 이성애라는 환경의 틀 안에서 자라나는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감정이 "다른 이"들과는 달리 동성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름"의 시작은 실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 역시 막연한데도 우리는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 요구가 아니 필요가 생겨나는 이유는, "이성애자이다" 라는 가정을 넘어 "이성애자여야만 한다"는 조건과 사회 강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동성애가 이성애와 함께 자연스러운 인간의 사랑의 한 형태로 별반 다름없이 인정받고 축복받는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텐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커밍아웃에는, 그 "드러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동성을 사랑하는 감정을 자신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커밍아웃이라고 할까요?

자신에게 커밍아웃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리면 부정적인 반응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아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반응의 바탕에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오해, 편견이 깔려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성애자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관계가 매우 서먹하곤 했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없이 잘 어울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날 멀리하고 시작했지요.

그 순간에는 믿기도 했지만,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한 사실때문에 일순간에 180도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것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성애자는 이성을 좋아하고 동성애자는 동성을 좋아하고"라는 단순함이 그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들에게 동성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아니, 오해할만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였죠. "오해와 편견과 무지"를 결코 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동성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자라온 우리들이었으니까요. 저도 제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데에 까지 12년이 걸렸어요. 24살에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 역시도 저의 동성애와 고민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많은,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 속에서 저와 친구들은 다시 그 전의 친구 사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나와 친구와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매워놓은 환경들에 대해 부딪쳐야 했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커밍아웃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거나 실부르게 하는 이성애자 친구에게 커밍아웃은 서로에게 오히려 아픈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밍아웃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먼저, 자신의 동성애에 대해 충분한 여유와 긍정적인 자세와 편안함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성애자 친구들에게 커밍아웃 이전에 동성애자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자신에게 커밍아웃"에도 도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주위의 동성애자들과 함께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성애자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먼저 혼자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학교에서 발표가 있으면 미리 한번 해보는 것처럼 정말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동성애자가 남몰래 수년동안 고민한 것에 대해 이성애자 친구들은 어쩌면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래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순간의 당혹감일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성애자들을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커밍아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닌, 살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분명 이것이 우리를 받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동성애자의 정치

동성애자 인권연대 운영위원 최이연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목적의 단체결성 및 문화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 속에서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정치적 질곡과 현실을 파악하는 입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또한 강조한다.

동성애자와 억압은 같은 이름의 다른 표현이다. 어떤 동성애자는 부유하게 살고, 그가 동성애자인 것을 도리어 삶의 한 방편으로 삼는다고 하여 그가 정체성으로서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아니다. 즉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억압과 그 억압에 항거하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의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다. 이성애자들의 도덕률과 타협하여 그들의 규제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도덕주의'도 한 방편이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성애자에게 열심히 애원하고 설득하여 그들이 던져주는 동정이라도 얻어내면 다행이지 않느냐는 발상이고, 지금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주류이고 대세이다. 그들은 하위 문화 운운하며, 사우나와 극장을 혐오하고, 에이즈가 세이프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성행위 경험의 빈도와 연결된 것인양 열심히 이성애자 도덕률의 전도사가 되어 동성애자 내부에 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부류는 개발에 맘나도록 이성애자 흉내를 내어봤자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분리적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호박에 줄 굶는다고 수박이 되느냐는 자기비하이며, 해방의 포기라는 점에서는 도덕주의 세력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군상들이다. 그들은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충실한다는 전제 속에, 이성애자 겁낼 것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다는 소위 퀴어리즘 계열들이다. 주로 문화활동이나 그 구조 속에서 우아한 끼를 떨지만 해방의 대안이나 전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동성애자 해방의 문제는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성적, 사회적, 경제적-결국 정치적 억압의 문제이며, 이와 투쟁하는 정치운동이 궁극적 해결 방식이라는 주장에 많은 이들은 희의를 표한다. 체제만이 동성애자를 억압하는가? 즉 동성애자 해방의 궁극적이고도 실제적 방안으로 동성애자의 정치 세력화를 이야기 할 때, 제기되는 질문의 대부분 출발선은 그 정치 세력화의 현실적인 모습에 대한 의구심인 모양이다. 동성애자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유럽에 동성애자당이 없

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당선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의회내 의석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없다.)

그러면 기존의 진보적 정당 안에서 동성애자 해방정책을 실현하고, 의회에 진출 할 것인가? 아니면 압력단체로서 인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의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모두 동성애자 정치 내지 정치세력화의 현상적 모습 내지 유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치활동의 대안과 바탕에 진정한 동성애자의 정치는 동성애자가 해방됨으로서, 전체 인간에게 지워진 억압의 사슬이 동시에 풀린다는 인식 위에 지도력을 확보하겠다는 자신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가족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우리 안에 가두기 위해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체제를 어떤 식으로도 유지 강화할 것이며, 그것은 어떤 정치화되지 않은 인권운동으로도 부술 수 없는 견고한 사슬이란 것을 깨달아야 된다. 중간계급적 나태와 안일은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해방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으로 문제의 본질은 어두운 게이바의 내온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해방의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같은 체제 안에서 억압당하고 같은 체제 안에서 해방될 세력과의 연대이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꼬리를 내리는 답변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현상이 아니라 그 역동성을 관통하는 축적의 무제가 동성애자를 억압한다면 대안도 역시 역동하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어야 한다.

그렇다. 지금의 유일한 대안은 노동자와 여성등 억압받는 계층과의 연대이고 그들의 해방속에 동성애자가 해방되며, 동성애자 해방 속에 노동자등 모든 억압받는 세력들의 진정한 해방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정치적 인식과 진정한 연대세력의 농침은 결국 인권운동의 결말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방송출연, 책 출간, 토론회... 그것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일 뿐이다. 그러한 활동이 미치는 각 부문적이고, 연대의 밑바탕이 되는 활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활동 속에 동성애자끼리만의 연대와 삶에 안주하고, 동성애자 해방의 정치적 인식과 연대를 차단하는 모든 분리적 역할 분담론을 경계한다.

우리는 동성애자에게 지워진 억압과 그 해결의 방안으로서의 정치와 노동자와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 이성애자는 물론 동성애자 집단 안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음을 도리어 기뻐한다. 동성애자의 해방을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 '동성애자 정치'의 문제는 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한국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위기

동성애자 인권연대

한국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언제 안정적으로 있어 본 적이 있겠는가만은, 최근 탤런트 홍석천씨의 커밍아웃과 관련한 문제와 정보통신부가 강행하려는 정보통신질서 확립법이란 거창한 이름의 악법은, 한국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동성애자 인권운동 이후 유례없는 위기를 주고 있다

우선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은 그 이전의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내지 지식인 중심의 커밍아웃과는 질적, 양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인권운동가나 지식인 중심[홍석천씨가 지식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의 커밍아웃은, 그들 인권운동의 한 발판으로 작용할 때가 많았고, 지식인 사회의 일정 정도의 개방성 확보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강도를 훨씬 완화시킬 소지가 컸다. 물론 그들 가족, 친지 관계를 중심으로한 정서적 충격과 개인의 심리적 갈등 양상은 차치하고 말이다

그러나 홍씨는 이러한 이전의 커밍아웃과는 달리, 커밍아웃의 결과가 순전히 그에 대한 부정적 피해 양상으로만 끝날 소지가 크다

그 이전의 수십 건이 넘는 운동가와 지식인들의 공중파 중심의 커밍아웃이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커밍아웃이란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고 수용하여, 더이상 벽장속에 가두듯이 자기를 가두지 않고, 밝은 햇빛속으로[BECOMMING VISIBLE], 자신의 존재를 밖으로 들어 낸다는[COMMING OUT OF CLOSET]의미이다

홍석천씨가 말한 것처럼 한 인간의 실존적 실체와 양심의 합치상태를 추구하는, 자기긍정의 어려운 결단이 커밍아웃이다

한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의 강도를 볼 때 이는 순전히 자신의 고독한 결심이 필요하며, 일단 결정한 이상 그는 그 이전의 존재와는 다른 삶의 기반을 갖는다

그래서 동성애자에게 커밍아웃은 소중한 경험이고, 또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있어 정치적 영향

력도 커다. 따라서 동인련은 동인련의 원칙에 명기된 것처럼, 모든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지지한다

다만 개인의 커밍아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강요하거나, 강제적 아웃팅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개인의 커밍아웃의 부정적 결과는 그 이후 다른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예인 홍석천의 경우는 두말 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번 홍석천씨의 커밍아웃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이 출국한 상태에서 일방적 보도를 자행한 일간스포츠와 이후 홍씨 관련 기사를 단순한 흥미거리 내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남발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는 바로 한국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주류 사회 시각의 일단이다

언론의 보도행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KBS, MBC등 방송국의 홍석천씨에 대한 일방적 출연정지 처분이다

출연자가 단순히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출연정지 처분을 한 것은, 한국 동성애자 인권 현실과 또 이 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는 처사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억압적 일방 해고 조치에 대해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이번 출연정지 처분은 홍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동성애자 전체에 대한 부당한 억압 조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홍석천씨를 지지하는 모임이 결성되고, 법적 대응도 논의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누가 동성애를 싫고, 좋고 식의 개인적 판단을 문제 삼을 의도는 없다

그러나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이 그의 일방적 불이익으로만 끝난다면 이는 인권운동 이후 한국 동성애자 공동체에 다가 온 큰 위기라고 본다

홍석천씨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최근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이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건전한 통신질서 확립을 위한다면서, 통신망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내년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수많은 네티즌의 열화같은 반대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정보 차단 등 그럴싸한 의피를 둘러 쓴 이 법의 강행 처리 이면에는, 동성애자와 관련한 정보차단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터넷 등급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인터넷정보 장악과 검열을 목적으로 하며, 그 실행 및 집행 기관으로서 정통부의 위상과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안의 근본 취지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정통부가 차단하려는 그 위해 정보 내용중에 동성애자 관련 사이트의 폐쇄나 접근 차단같은 내용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경계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권부분에서 가장 사각지대로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는, 그간 몇년간의 피나는 인권운동의 결과로, 그나마 정보교류에 개방적이고 소통이 쉬운 인터넷 상에서 상호 친목과 동성애자로서 어려운 삶의 위안을 조금이나마 삼아 왔다

따라서 한국의 동성애자 사이트 운영자들과 이용자들은 혹시 통신망 운영자나 정부 기관에서 동성애자 사이트에 대해 가해질지 모르는 부당한 감시와 억압을 피하기 위해, 외국의 동성애자 사이트처럼 선정적인 사진이나 정보교류를 스스로 차단하려는 부당한 자기 내부검열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통부의 정보등급제는 단지 [동성애]란 그 이름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위해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단되어야 할 나쁜 정보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 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으로 가출과 심지어 자살에 이르고 있고, 혹여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이 밝혀지면 가정은 물론이요, 학교 직장에서의 추방, 따돌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동성애자 사이트는 그간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상담자로서의 구실과 상호친목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온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에게 막연한 혐오감이나 편견을 가졌던 이성애자에게도 올바른 동성애자에 대한 정보제공처로서의 구실을 다해 왔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정통부의 통신망법 제정은 이러한 동성애자의 인권과 삶의 기반을 다시 암흑으로 돌려 놓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일상적인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 외에 동성애 커뮤니티 전체를 위기로 몰고 있는 최근의 두 사례에 대해,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자 한다

동성애 관련용어/개념

SEXUAL ORIENTATION(성적지향):

한 개인의 성적지향은 감정 및 성적으로 애착이 가는 대상의 성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즉, 동성에게 향하면 동성애적 지향(homosexual orientation)이고, 이성에게 향하면 이성애적 지향(heterosexual orientation)이다. 이 용어가 대인관계에서 성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실제에서 성적지향은 감정과 행동, 표현, 그리고 자기-결정들을 포함하는 여러 범위에 개입된다.

SEXUAL IDENTITY(성정체성):

성정체성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바탕으로 그것을 자신의 일부분으로서 인정하고 통합(정체화)함을 의미한다.

LESBIAN(레즈비언):

감정-성적으로 여성에게 끌리는 여성. 이 단어는 기원전 7세기 고대 그리스 시인인 사포(Sappho)가 만든 커뮤니티가 있던 섬의 이름인 레즈보스(Lesbos)에서 유래한다. 사포의 대부분의 시들은 여성과의 사랑을 노래한다.

GAY(게이):

동성(주로 남성에게 적용)에 감정-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보다 정확한 정의는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며, 자신을 "게이"라고 정체체화하고, 게이커뮤니티에 한 구성원이라고 보는 사람. 전통적으로 "게이"는 여성과 남성을 모두 지칭하는 발생적 어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성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었음. 발생적 개념에서 남성 위주로 여성을 경시하는 면이 있어 ("man"이라는 말이 인류를 의미함과 동시에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나, 또는 "history"가 his+story에 어원을 둔 것처럼) 현재는 남성동성애자는 Gay Man 또는 Gay Male 라 칭하며, 여성동성애자는 Lesbian 라 한다.

BISEXUAL(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감정-성적으로 양성별에 연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지향되는 사람. 엠비섹슈얼(ambisexual)로도

명칭 된다.

AMBISEXUAL(엠비섹슈얼):

이 개념은 성적지향이 동성인지 이성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킨제이(Alfred C. Kinsey: 심리학에서 자세히 소개됨)와 그의 학계는 이 개념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바이섹슈얼이라는 말이 고정적이고 양성별에게 동등하게 성적으로 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엠비섹슈얼은 특정한 환경에서 양성별에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의 유동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TRANSSEXUAL, TRANSGENDER(ED)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드)):

대부분의 문헌에서, 두 용어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이나 출생시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살기를 선택한 이들을 의미한다. 트랜스젠더는 여성/남성, 여성성/남성성의 담론 속에서 성(sex)을 젠더(gender)로 대치하는 운동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트랜스젠더는 "잘못된 신체"의 소유에 대한 불편을 가지고, 그 오류를 정정하기를 선택한다. 그들은 행동과 옷차림, 매너 등을 바꿀 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수술을 통하여 "올바른 신체"를 얻어 성/젠더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트랜스섹슈얼과 트랜스젠더의 구별을 "잘못된 신체"에 대한 의미부여에서 찾는다. 즉, 트랜스섹슈얼이 한 개인의 신체적이고 성적인 측면의 정체성에 중점을 둔 반면, 트랜스젠더는 여성과 남성의 심리-사회적인 광의에 초점을 둔다.

QUEER(퀴어):

전통적으로 동성애자를 일컫는 속어였던 퀴어가 점차적으로 이성애주의에 대안적인 모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을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비하적인 의미의 이 단어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재활용되어 그들의 자긍심을 표현하고, 젠더벤딩(GENDER BENDING)에 함께 참가하는 성적소수자의 공유감을 나타낸다. 퀴어는 "다르고, 이상하게(queer의 사전적 의미)" 규율과 관습에 도전하는 모든 이의 의식과 욕망을 포괄하는 용어로 편리하게 쓰이지만,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들은 다르고, 이상하다고"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쓰여진 이 단어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DRAG(드랙):

"드랙"을 함은 젠더역할의 틀을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공격함을 의미한다. 드랙은 "이성"용 복장을 착용함을 넘어서, 화장과 매너의 묘사에서 극단성을 보여준다. 드랙퀸은 공공장소나 바에서 드랙을 하는 남성을 말하며, 드랙킹은 여성을 의미한다. 드랙은 동성애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HOMOPHOBIA(호모포비아):

사전적 의미로는 동성애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뜻한다 (phobia-공포증). 그러나, 이 용어는 동성애자들 자체, 그들의 성행위, 생활양식, 신념들에 대한 반대, 혐오, 편견, 차별을 포괄한다.

출처: Bohan, J. S. (1996). Psychology and Sexual Orientation: Coming to Terms. New York: Routledge.

HETEROSEXISM(헤테로섹시즘; 이성애주의):

이성에 성정체성과 행동만이 정상이며 규준적인 반면에 다른 성적지향들은 일탈적이거나 변태적이고 비정상이라는 믿음. 제도적인 이성애주의는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성적소수자들을 부정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처벌 하면서, 이성애를 정치, 종교, 등을 비롯한 공적 장소에서 지지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주석 출처: Goffman, Erving.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ew York: A Touchstone Book, published by Simon & Schuster, Inc.

OUTING, TO "OUT" SOMEONE (아웃팅):

커밍아웃과는 달리, 한 개인의 성적지향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나,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액티비스트들은 아웃팅은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이어서, 만약 동성애자가 자 신을 숨기지만 한다면, 모든 동성애자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명제 아래, 그들은 공적으로 성적지향을 숨기기로 한 사람들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커밍아웃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 에게까지 그들의 성적지향이 알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아웃팅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의도치 않은 아웃팅이 반드시 그러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가,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도중에, 커뮤니티 내에서, 또는 동성애자들을 만나면서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이성애자들도 "정기적"으로 아웃팅을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논쟁의 의지는 없다. ("나 그녀의 남편 알아요" "그녀 는 내 남동생과 데이트해요.") 오직 동성애자에게만 성적지향에 대한 정보를 내놓은 그것이 솔직하고 우연한 일이라도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출처: Bohan, Janis S. (1996). Psychology and Sexual Orientation: Coming to Terms. New York: Routledge.

동성애자 정체성과 운동 안에서의 상징들

무지개(RAINBOW):

무지개 깃발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동성애자의 상징이다. 레인보우는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인종, 국적, 종교, 언어, 신조, 계급, 직업, 가족구성 등의 모든 다양성의 인정과 긍지를 나타낸다. 무지개 깃발은 1978년 샌프란시스코의 예술가 길버트 베이커(Gilbert Baker)가 게이퍼레이드에서 쓰일 깃발을 위해 고안하였다. 베이커는 히피운동으로부터 흑인인권운동 등의 여러 곳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깃발을 만들었고, 각각의 색깔에 동성애자들의 삶의 측면들을 표현하였다.

분홍: 섹슈얼리티(sexuality)

빨강: 생활(life)

주황: 치유(healing)

노랑: 태양(sun)

초록: 자연(nature)

파랑: 예술(art)

남색: 조화(harmony)

보라: 정신(spirit)

베이커와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수작업으로 이 8가지 색깔의 깃발을 만들어 1978년 샌프란시스코 게이퍼레이드에 나갔으며, 그것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1979년 게이퍼레이드에 쓰고자 대량 제작 주문을 하였는데, 당시 베이커가 썼던 분홍색이 인쇄용 색깔이 아닌 결과로 인하여 결국 분홍색은 아쉽게도 제외되었다. 그러한 즈음에 1979년 미국 최초의 게이 시감독원인 하베이 밀크(Harvey Milk)의 암살 사건은 동성애자들의 연대의 소리를 높였고, 이와 맞추어 레인보우 깃발의 사용의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하였다. 레인보우 깃발 위원회는 색깔의 대비를 위하여 남색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쪽 보도에는 "빨-주-노"가 다른 편에는 "초-파-보"가 퍼레이드의 열을 만들어, 1979년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들은 행진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레인보우 깃발의 탄생이다.

어느 상징들이 그러하듯이 그 기본을 가지고 여러 변형과 복합은 이루어진다. 레인보우는 특히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매우 유용적이다. 어느 게이 커뮤니티든지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여 창조적으로 레인보우를 이용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하였다.

분홍색 역삼각형(INVERTED PINK TRIANGLE):

히틀러 집권당시, 동성애자들은 다른 소수자들과 나치수용소로 강제로 끌려가 노동과 입상실험에 이용되고, 처형까지 당하였다.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노란색의 삼각형을 동성애자들은 분홍색삼각형을 달았다. (분홍색 역삼각형의 역사적 배경은 [역사] 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분홍색 역삼각형은 1970년 게이해방운동과 접목되어 사용되기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그 대중성을 더욱 인정받았는데, 특히 에이즈운동 단체인 ACT-UP(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번역하면 "거침없는 투쟁력의 AIDS 연합")는 이 상징을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적극적인 투쟁의 승화로써 사용하였다

검은색 역삼각형(INVERTED BLACK TRIANGLE):

분홍색 역삼각형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오직 남성들에게만 쓰였기에 레즈비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은 "반사회적, 레즈비언니즘, 페미니즘, 매춘" 등의 "죄목"으로 수용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리, 청소, 부엌일, 자녀양육, 수동성 등의 나치의 여성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검은색 역삼각형을 달았다. 이후에, 레즈비언들과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의 자긍심과 연대의 상징으로 이를 사용한다.

홍석천과 같지만 다른 사람들

그레그 루가니스 Louganis, Greg (1960.01.29 -), 다이빙 선수

"게이이면서 스포츠 세계에 몸담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죠. 내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레그 루가니스

축구하면 펠레를 떠올리고, 권투하면 무하마드 알리를 떠올리듯, 다이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레그 루가니스라는 이름은 잘 모를 지라도,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서 부상을 딛고 플랫폼에 선 잘생긴 다이빙 선수는 아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올림픽 대회의 남자 플랫폼 다이빙 부문에서 1976년 은메달, 1984년과 1988년 2회에 걸쳐 플랫폼과 스프링 보드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상한 루가니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다이빙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빙에서 2연패를 한 선수는 루가니스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탈리아의 클라우스 디비아시의 경우 1968-76년 3회에 걸쳐 남자 플랫폼 다이빙 부문의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스프링 보드와 플랫폼 부문 모두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것은 루가니스가 처음이었으며, 또 2연패를 한 것 역시 그가 최초였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1979)에서 16살의 나이로 은메달을 수상한 루가니스는, 1979년 팬아메리카경기대회의 스프링 보드와 플랫폼 모두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미국 다이빙계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주목 받게 됩니다. 올림픽의 다이빙 부문 2연패 이후로 1993년 게이의 삶에 대해 다룬 브로드웨이 연극 <Jeffrey>에 출연했으며, 1994년 뉴욕에서 열린 게이 게임(Gay Games)에서 자신이 게이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듬 해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자서전 <Breaking the Surface>(1996)을 발표해 큰 인기를 얻었죠(TV영화화). 1997년에는 1990년대 게이 삶에 대해 그린 영화 <It's My Party>에도 출연합니다.

자서전의 발표와 함께 시작된 그의 순회 강연과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동성애 및 난독증(어린 시절 그는 난독증을 겪은 바 있습니다) 관련 단체의 여러 행사와 강연회, 축제등에 참여하면서 게이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AIDS예방에 대한 교육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커비 Michael Kirby (1939.03 -), 법률가 | 판사

"미국에서도 아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최고법원의 판사 마이클 커비가 자신이 게이라고 발표한 것을 무관심한 일상의 일 대하듯 받아 들였다."

<The Sydney Morning Herald>, 1999.04.19

<펠리컨 브리프 The Pelican Brief>(1993)에서 극장서 살해당하는 미국연방대법원 대법관이나, <L.A. 컨피덴셜 L.A. Confidential>(1997)에서 창문에서 떨어질 뻔한 검사기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필라델피아 Phila delphia>(1993)의 변호사 톰 헵크스네요? 게이가 어떤 특정 직업에만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범한 사실이지만, 막상 법률가나 고위층 사람들 중에서 커밍 아웃한 사람을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커밍 아웃 함으로써 잃는 것이 많다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커밍 아웃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고법원의 판사 마이클 커비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명록 Who's Who in Australia>에 다음의 내용 : "p. February 11, 1969, Johan A. van Vloten."(1969.02.11 부터 파트너 Johan A. van Vloten과 함께 살고 있음)을 올림으로써 커밍 아웃 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도 즉각 알려진 것은 아니고 책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난 후 타블로이드 판 신문이 기사화 함으로써 그나마 뉴스거리가 되었죠.

커비는 1996년 2월 최고법원의 판사로 지명받아 현재도 활동 중입니다. 지명 이전에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상고법원 법원장, 오스트레일리아 쟁의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오스트레일리아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저명한 법률가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행동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위직 인사의 커밍 아웃을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위에 인용한 신문 기사처럼 별 다른 놀라움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신문의 한 칼럼에서는 커비의 발표에 30년이나 걸린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할 정도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커밍 아웃이 단순한 사실의 확인차원은 넘어 선다고 말합니다. 동성애자인 고위 공직자들이 드물게 몇몇 밝혀진바 있지만, 현직의 최고법원 판사가 스스로 커밍 아웃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올해로 환갑을 맞는 커비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70세 은퇴까지 현직을 수행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엘런 드제너리스 DeGeneres, Ellen (1958.01.26 -), 배우 | 코미디언

"나는 '레스비언 배우'가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게이 커뮤니티의 대변인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요. 그것은(커밍 아웃 한 것은) 내 자신의 진실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엘런 드제너리스, <타임 Time>지와 한 인터뷰에서

1996-1997년 시즌 동안 미국 TV 시트콤 중에서 인기를 누린 프로그램은 여러 편 있겠지만, 가장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라면 단연 ABC의 <엘런 Ellen>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없어진 동아 케이블 TV에서 방영되기도 했었으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 여겨지네요. 1997년 4월 30일 방영된 <엘런>의 'Puppy Episode'(주인공 엘런이 커밍 아웃하는 내용)는 시청 점유율 35%를 상회하는 인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엘런>은 게이가 주인공인 최초의 프라임 타임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시트콤 속의 엘런은 시청자들에게, 실제 생활의 엘런은 <타임>지와 한 인터뷰로 독자들에게 모두 커밍 아웃을 한 셈이죠.

원래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던 엘런은 코미디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클럽의 스탠드업 코미디와 TV 출연을 병행하던 중 1994년 <These Friends of Mine>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엘런 모건 역을 맡게 되죠. 이 프로그램은 그 다음 시즌에 <엘런>이라고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대단한 인기를 모아서 엘런은 많은 상과 일반 대중의 인기를 받게 되었죠.

현재 엘런은 우리에게 <볼케이노 Volcano>와 <식스데이 세븐나잇 Six Days Seven Nights>으로 잘 알려진 앤 헤치 Anne Heche와 사귀고 있고, 최근 개봉했던 영화 <러브 레터 The Love Letter>에 자넷 홀 역을 맡았습니다.

-웹사이트 '커밍아웃(<http://i.kebi.lycos.co.kr/~comingout/main.html>)에서 발췌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1. 흥커지모는 무엇인가요?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은 커밍아웃한 홍석천 씨에게 가해진 모든 차별과 불이익, 맹목적인 공격과 비합리적인 혐오를 물리치는 힘을 모으기 위한 모임입니다.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구성원이며 자원활동가들이 사무국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 흥커지모는 왜 만들어졌나요?

커밍아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공동체와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려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이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공격받는 것을 방어하고 모든 성적소수자들의 삶의 존엄을 지지하고자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3. 흥커지모는 무슨일들을 했나요?

흥커지모는 10월 4일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한후 언론감시활동과 꾸준한 캠페인, 지지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공식 웹사이트 '커밍아웃2000(www.comingout2000.org)을 운영하여 홍석천씨의 커밍아웃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일간스포츠> 홍석천씨 아웃팅

9월 22일 MBC <뽀뽀뽀> 홍석천씨 부당해고

9월 23일 한국방송공사 라디오 시트콤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 홍석천씨 부당해고

9월 27일 홍석천 공개입장 표명(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함)

9월 28일 6개단체(동성애자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등 6개단체) 지지 성명서 발표·민주노동당 지지 성명서 발표

10월 4일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발족식 및 기자회견 [별첨자료 1]

10월 5일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동인련 대표 임태훈씨 패널참여

10월10일 경희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10월11-13일 부산국제영화제 홍석천 커밍아웃 지지 서명 캠페인

10월19일 아셈 전야제 홍석천 커밍아웃 지지 서명 모금 캠페인

10월26일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및 캠페인

10월27일 홍석천씨 제 5회 인권영화제 개막식 사회복, 관련 캠페인 진행

10월29일 인권영화제 '제 9법안 찬반투표' 상영 및 '동성애자 인권을 이야기하자' 패널 토론 및 관련 캠페인 진행

10월31일 한성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및 관련 캠페인 진행

11월 1일 한양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홍석천씨와의 대화시간 가짐)

11월 3일 홍석천씨 국감 참고인 출석 거부

11월4-5일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MT

11월 7일 홍석천씨 국감 참고인 출석 재 거부

11월 8일 동성애자인권연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등 13개 단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공개 질의서 채택

11월 8일 경북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11월 9일 부천 YMCA 강연회

11월 9일 서울예술대학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11월12일 전태일 열사 30주기 노동자대회 레인보우 깃발들고 행진.

홍석천의 커밍아웃과 언론

홍석천 커밍아웃과 관련한 주요기사를 발췌했습니다.

한겨레21 2000년09월26일 제327호

[사람과사회] 누가 그의 결단을 유린했는가

언론에게 '아웃팅' 당한 홍석천, 그의 극적인 커밍아웃

지난 9월17일치 <일간스포츠> 1면에 홍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 제목이다. “사실... 난 남자가 좋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기사는 커밍아웃 인터뷰라면 당연히 상세하게 실었어야 할 직접 인터뷰 내용은 거의 없고 이른바 ‘카더라’ 방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기있는 행동” 운운하고 있지만 커밍아웃한 연예인이 사용했 리 만무한 “호모”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달고 있었다. 뭔가 미심쩍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홍씨는 한 여행사의 올림픽 응원단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가 있었다. 그리고 커밍아웃 기사가 나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에 있던 매니저로부터 보도 사실을 전해 들은 홍씨는 “우선 황당했고 (보도한 기자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보도를 한 <일간스포츠>의 오아무개 기자는 홍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한다.

홍씨는 출국하던 날인 9월16일, 공항에서 기사를 쓴 오아무개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어디서 전해 들었는지 오 기자는 한 월간지와 인터뷰 사실을 대며 홍씨에게 “그 인터뷰에서 커밍아웃을 했느냐”며 추궁했다. 출국을 앞두고 경황이 없었던 홍씨는 “월간지 기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다”며 “돌아온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달랬다. 하지만 홍씨의 말에 따르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결론내리는 방식”으로 오 기자는 홍씨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리고 출국 바로 다음날, 기사로 내버렸다.

기사에 인용된 ‘한 월간지’는 <여성중앙21>이다. <여성중앙21>의 안아무개 기자가 9월 초 갑자기 홍씨를 만나자고 했다. 홍씨는 그저 평범한 인터뷰려니 하며 기자를 만났다. 일단 홍씨를 만난 안 기자는 “홍석천씨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나?”고 캐물었다. 언젠가는 꼭 커밍아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홍씨는 “정말 알고 싶으면 얘기해 드리지요”라며 솔직하게 동성애자임을 털어놓았다.

‘아웃팅’은 일종의 정신적 테러

“왜 그랬느냐”는 물음에 홍씨는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그게 나니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가 무조건 보도를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홍씨는 “아직 부모님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을 설득한 다음 기사를 내보내자”는 조건을 붙였다. 일종의 ‘오프 더 레코더’ (off the recorder)였던 셈이다.

<여성중앙21>과 인터뷰를 한 뒤, 홍씨는 부모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세가 많은 부모들은 “넌 절대로 (동성애자가) 아닐 거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한사코 커밍아웃을 말렸다. 인터뷰를 한 9월 초부터 보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지만 난공불락이었다. 그 와중에 <여성중앙21>쪽은 “우리과 (커밍아웃) 인터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며 직접 홍씨의 부모를 만나기도 했다. 홍씨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홍씨는 시드니로 떠났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오자’는 마음이었다. 물론 자신이 시드니에 있는 사이 커밍아웃 인터뷰 기사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국 바로 다음날 <일간스포츠>를 통해 기사가 나가버렸다. 한마디로 날벼락이었다.

커밍아웃은 반드시 예견되는 주변의 반응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준비와 판단이 우선이다. 물론 그 사이 수십번의 치열한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만큼 커밍아웃은 한 개인의 침범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이자 당사자와 가족, 한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는 관계의 문제이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아웃팅은 한 개인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뜨릴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몰고 간다. 더구나 아직 한국사회의 동성애 공포증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자행되는 아웃팅의 위험은 서구사회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홍씨는 “기사가 나간 뒤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되뇌었다. 무엇보다 당당한 커밍아웃의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버린다는 점에서 아웃팅은 일종의 ‘정신적인 테러’에 해당된다.

실제적인 불이익 현실로

과연 동성애자라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공표해도 되는 것일까. 공인의 사생활 문제니 보도해도 좋다는 논리는 가능한 것일까. 누가 누구와 사귀는다는 가십기사와 누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같은 수위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신도 모르게 알려졌을 때 받을 불이익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고리타분한 윤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사법적인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문제다.

9월21일, 귀국 당일 심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의 아파트에 만난 홍씨는 몹시 지쳐 보였다. 12시간의 장시간 비행에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취재경쟁, 게다가 마음 고생까지 한날 한꺼번에 겹쳤으니 초췌한 게 어찌면 당연했다. 잠시 “아예 시드니에 눌러 살까”는 고민까지 했다는 홍씨.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는 그는 당시만 해도 ‘커밍아웃’을 할지, 노코멘트로 일관할지, 기사를 전면 부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본인이야 떳떳하게 밝히고 싶지만 가족들이 여전히 만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인 9월22일, 홍씨는 정식으로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내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쓸쓸히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겪은 심적인 고통이 묻어났다.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도 한꺼번에 드리워져 있었다.

우려하던 대로 벌써 실제적인 불이익이 홍씨에게 현실로 닥치고 있다. 9월22일, 출연하고 있던 문화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를 그만둔 것이다. 담당 PD로부터 “윗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홍씨는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날 아침에는 출연이 예정돼 있었고 이미 1회분 녹음까지 마친 한국방송공사 라디오 시트콤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도 받았다. 하지만 상황이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인방송의 <연예세상>에서는 “우리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다음회 녹화스케줄을 알려왔다.

동성애 정체성이 침투한 첫번째 세대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지는 않는다. 공무원 동성애자나 셀러리맨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심리적 압박은 받을지언정 ‘직위’ 자체는 보장된다. 하지만 연예인은 고정적인 직위를 갖지 않는 특수한 직업이다. 캐스팅 ‘당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연예인은 어찌 보면 커밍아웃하기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더구나 캐스팅 여부는 이미지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캐스팅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라는 이유가 심증이 될 수는 있어도 항의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면도 크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라는 그의 탄식처럼 녹록지 않은 현실이 홍씨 앞에 놓여 있다.

물론 홍씨의 커밍아웃은 개인의 결단이 우선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동성애자 공동체의 변화가 놓여 있다. 95년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를 통해 동성애자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은 홍씨. 그 당시는 줄곧 ‘숨은 존재’였던 동성애자들이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시절이었다. 그 무렵 공개적인 커밍아웃이 처음 시도되었고, 동성애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류의 다큐멘터리 추적 프로그램의 단골 출연진이었다.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일 뿐”이라는 언명은 새로운 동성애자 이미지를 상징했다.

이런 대중매체에서 동성애자 이미지의 변화와 인권운동의 출현은 동성애자 공동체 내부 또한 크게 바뀌 놓았다. 더이상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변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 공동체에서 “호모”라는 비하적인 말 대신 “게이”라는 자긍심의 언어가 자리잡은 것도 이즈음이다.

이전 세대의 동성애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주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속한 밤거리로 스며들었던 데 비해 90년대 중반 공동체에 편입된 동성애자들은 서로의 실명과 집 전화번호를 나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 동성애자들이 비로소 ‘동성애자 친구’를 갖게 된 것이다. 종로를 대신해 새로운 동성애자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른 이태원은 그 변화를 상징한다. 이전 세대가 일상과 동성애적 삶의 분열을 감내하고 살았다면, 70년대생 동성애자 세대들은 그 고통을 적극 해소하려 했다. 이런 현상은 ‘커밍아웃’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나타났다. 홍씨도 90년대 중반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세례를 받고, 공동체에 편입된 경우다. 더구나 홍씨는 솔직 담백한 성격 탓에 연예인이 된 뒤에도 동성애자 공동체에 발을 끊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공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래도 일상을 갑갑하게 만들었다.

그의 집 소파 옆에는 <씨네21>이 한권 놓여 있다. 9월 초 개최되었던 퀴어영화제 프로그램이 담긴 책이었다. 홍씨는 <씨네21>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인 듯 중얼거렸다. “퀴어영화제가 열릴 때마다 얼마나 가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동성애자 친구들과 정말 함께 호흡하고 싶었어요...” 홍석천씨 세대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과 함께 퀴어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하는 세대다. 그만큼 동성애 정체성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첫 번째 세대라는 뜻이다. 전례가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그로서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겠지만, 그의 커밍아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연예인으로 최초인 홍씨의 커밍아웃은 90년대 중반 이래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과 조금 다른 맥락을 지니는 것이다. 여태껏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화평론가 등 ‘지식인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거나 동성애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이었다. 지식인사회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동성애공포증’이 덜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들의 실존적 결단도 힘겨운 과정이었겠지만 ‘국민대중’을 상대해야 하는 연예인 홍씨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는 누구도 함부로 무시 못할 반열에 오른 대스타도 아니다.

홍석천 커밍아웃의 특별한 의미

한국연예인 최초로 커밍아웃을 고민하던 홍석천씨는 언론에 의해 결국 아웃팅당한 꼴이 됐다. 하지만 그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극적인 ‘커밍아웃’으로 사태를 매듭지었다. 스스로 “치기어린 용기”라고 평한 이 행동에 한국사회가 잔잔한 박수를 보낼지 신경질적인 야유

를 보낼지 두고 볼 일이다. “연예인의 두 번째 커밍아웃은 또다시 아웃팅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언론의 양심이 달린 문제다.” 홍석천씨가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신윤동욱 기자syuk@hani.co.kr

[인권하루소식] 홍석천 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

동성애자라고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미개하고 우매한 처사다.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의 이면에는 동성애자를 정상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잘못된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홍 씨를 지지하며 힘내라고 격려하고 싶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진이지선 지역운동센터 부장

동성애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 정치적 결단으로 방송출연이 중지된 것에 대해 분개한다. 또 홍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보도는 인권침해다. 언론에 의해 반강제로 커밍아웃을 한 홍씨가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해 할 것으로 보인다. 홍씨에게 지지를 보낸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출연을 못하게 된 것은)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방송출연중지는 한국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다.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홍씨에 대한 테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견을 깨고, 소수자의 권리찾기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돼야 한다.

◎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홍씨가 방송활동을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심대해질 경우 공인의 커밍아웃은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커밍아웃으로 인해 직접 불이익을 받을 경우 동성애자들은 음지로 들어갈 것이다. 이 건 아주 비극이다.

[한겨레] 동성애자 인권과 국회 품위

‘동성애자는 국민이 아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묻는다. “국회의 본분은 무엇인가?”라고.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동성애자인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3개 시민단체가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탤런트 홍석천(29)씨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회출석을 거부당한 데 대해 “소수자의 인권을 비롯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저버린 중대 사태”라며 국회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위의 일부 의원들이 ‘동성연애자는 정신치료대상이다’, ‘동성애자 때문에 국회품위가 손상된다’며 홍씨의 국감장 출석을 막은 것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고스란히 답습한 무지하고 폭력적인 언행”이라며 “해당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동성애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분노는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권익침해를 이끌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지난달 ‘커밍아웃’으로 화제를 모았던 홍씨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3일 현장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임태훈 대표는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동성애자 홍씨가 아니라 본분을 저버린 국회의원들”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동성애자가 국회에 출석해서는 안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홍씨의 참고인 출석이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발언에 동의하는지 △동성애자가 정신치료의 대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해당 의원들에게 물었다. 품위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대답할 차례다.

안수찬 기자ahn@hani.co.kr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합니다!

홍키지모공식웹사이트(www.comingout2000.org) 지지게시판에 남기신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길....

망인 (placebo1213@hanmil.net)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감정이 끌리는 데로. 그가 혹은 남자든.. 그녀가 여자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한 남자가 힘겹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남의 말하기 엄청 좋아하는 대한 민국에서...말입니다. 보통 용기로는 그런 일을 절대할 수 없죠..
미치지 않고서야.....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겨가며, 죄인인양..힘들어 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 짹짹" 정말..멋진 홍석천님.....이번일로 타격이 크실 텐데..... 하지만 힘내세여..... 화이팅!!!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bethere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다수의 이성애자가 당신을 허락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치만 그보다 더 단단한 끈으로 이어진 우리 이반들이 당신을 허락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받아줄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성애자 중에도 당신을 인정하는 또 다른 소수의 이성애자가 또 있다는 것을 잊
지 마세요...

그들을 차별 할 이유가 없다.

장용봉 (bigdeal@korea.com)

동성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는것은 못생긴 여자를 차별하는것, 똥보를 차별하는것, 흑인을 차별하는것,
대머리를 차별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더 이성적이 됩시다. 우리 모두 서로의 다른 점을 포용할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줌마의 한사람으로 커밍아웃을 지지.

임혜영

홍석천씨! 저는 10살. 8살 두딸을 30대의 주부입니다, 우연히 동성애에 대한 자료를 찾다 이사
이트에 들어왔어요. 저는 동성애는 한개인의 성향,내지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
화,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해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 편견이 심하지만 저 같은 생각을 가
진 아줌마들이 많아진다면 당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권익도 신장되리라 믿습
니다. 그런점에서 당신은 용기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커밍아웃을 선언한 것은 홍석천씨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떳떳이 그것을 밝힐 수 있고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이슈
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석천씨를 응원
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홍석천! 힘내라.

'뽀뽀뽀'에서의 홍석천..

아이사랑 (kuanna@hanmail.net)

홍석천 오빠의 coming out 소식과 그에 따른 인터뷰 내용을 접하고서.. 정말 용기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뽀뽀뽀'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얼마 되지 않
은 쇼프로그램 중 하나이죠!) 나오던 홍석천씨가 강제로 출연 정지를 받으셨더군요!

평소...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써.. 그 프로그램에 불만이 많았던지라..

(예를 들면.. 유아들 수준 및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던가..유치한 내용과 상업적 요소등..)

뽀뽀뽀에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에.. 화도 아니고.. 그냥.. 우울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유아들이 다른 사람의 개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회는 자신과 다른 타인과 함께 공유하
며 사는 것임을 경험들 통해 알게 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교육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배움은... 자신의 신념과 철학

도 중요하지만 그가 속한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그 배움의 폭과 깊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료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교육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전 TV에서 두발 자유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더군요!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정말 비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하물며..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로...말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뽀뽀뽀에 계속해서 홍석천 오빠가 출연했다면..아마 학부모들이 난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들.. 동성애적 기질을 지녔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논리라면.. 제가 맡은 반의 유
아가 동성애적 기질을 보인다면 저는 반의 다른 유아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유치원에 못다니
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태어나면서 부터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개인
적 성향 및 기질이 있으므로 이를 통찰하여서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배웠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때만이 모든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주소 : 100-879 서울 중구 홍인동 95번지 5층

전화 : 02-2235-7422

전송 : 02-2236-7422

e-메일 : outpride@netian.com

outpride@freechal.com

홈페이지 : www.outpridekorea.com

www.comingout2000.org